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목 차 |||

I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일정	1
3. 주요활동	2
II . 방문국가 및 도시 개요	2
III . 주요 활동내역	4
1. 루앙프라방 시장 간담회	4
2.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간담회	7
3. 왕궁 국립박물관 간담회	11
IV . 기타 방문지	13
IV . 마 치 며	14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대전광역시 우호협력 도시인 라오스 루앙프라방시를 방문하여 문화관광 산업의 상호 협력 및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광역의회의 국제교류 및 지역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임.

* 루앙프라방시장 초청,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사전협의를 통한 공무국외출장임.

I 출 장 개 요

1 목 적

- 대전광역시와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교류 확대 논의
- 문화·관광(의료관광 포함) 산업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 대학생 등 청년에 대한 민간 교류 활성화

2 일 정

- 출장기간 : 10. 21.(토) ~ 10. 25.(수) / 3박 5일
- 방문지역 : 라오스(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
- 출장인원 : 8명 / 의원 5명, 공무원 3명

의 원(5명)

▶ 행정자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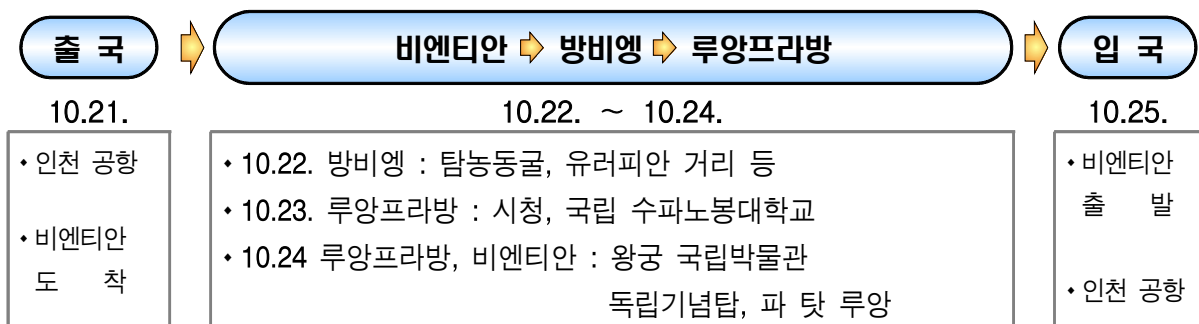
- 이재경 위원장, 정명국 부위원장, 김진오, 조원희, 이용기 의원

공무원(3명)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 문강숙 전문위원, 행정6급 최영호, 행정7급 이상현

- 기관방문 간담회
 - 루앙프라방시청, 국립수파노봉대학교, 왕궁 국립박물관
- 주요일정



3 주요 활동

○ 3박 5일 일정

일 자	장 소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일차> 10.21.(토)	대 전 인 천 비 엔 티 안	14:00~18:00 19:45~23:00 23:00~24:00	▶ 이동(대전 → 인천공항) ▶ 출국(인천공항 → 비엔티엔공항) ▶ 이동(공항 → 호텔)	제주항공
<2일차> 10.22.(일)	방 비 엥	10:00~11:00 14:00~20:00	▶ 이동(비엔티안 → 방비엥) ▶ 현지시찰 탐농동굴, 유러피안 거리 등	고속철도
<3일차> 10.23.(월)	루앙프라방	10:00~13:00 14:00~18:00	▶ 기관방문 : 루앙프라방시청사 ▶ 기관방문 :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4일차> 10.24.(화)	루앙프라방 비 엔 티 안	09:00~11:00 11:45~14:00 15:00~18:00 23:50~	▶ 기관방문 : 왕궁 국립박물관 ▶ 이동(루앙프라방 → 비엔티안) ▶ 현지시찰 : 독립기념탑, 파 탕 루앙(위대한 불탑) ▶ 출국(비엔티엔공항 → 인천공항)	고속철도 제주항공
<5일차> 10.25.(수)	인 천	07:20 08:00~12:00	▶ 입국(인천공항 도착) ▶ 이동(인천공항 → 대전)	

II 방문국가 및 도시 개요

□ 라오스 (Laos)

국 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수 도	비엔티안
인 구	763만 3,779명 (2023년)
면 적	236,000ha(한반도 1.1배, 국토 70% 산악지대)
종 교	불교 69%, 토속신앙 28%, 기독교 1.5% 등
경 제	GDP(국내총생산) 168억불, 1인당 국민총소득 1,729달러
위 치	동쪽 베트남, 서쪽 태국, 남쪽 캄보디아, 북쪽 중국 및 북서쪽 미얀마 등 5개국과 접경
관 계 (한 국)	1974. 6. 22 외교관계 수립 1975. 7. 24 외교관계 중단(1975년 8월 라오애국전선 공산혁명 성공) - 같은해 12. 2 왕정폐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 - 1986년 개혁·개방 노선에 의거 시장경제 도입 1995. 10. 25 외교관계 재개

① 비엔티안

위 치	라오스 중부지역
면 적	3,920km ²
인 구	약 97만명
특 징	<p>라오스의 수도이며 남쪽으로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태국과 맞붙어 있어 태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수입하고 있음.</p> <p>국제공항이 있어 여행자의 대부분이 비엔티안으로 입국하지만 방비엥과 루앙프라방에 비해 볼거리가 적은 편임</p> <p>라오스의 상징인 왓 탕 루앙(위대한 불탑)이 있고 이곳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라오스 태고의 사원으로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p>

② 루앙프라방주(Luang Prabang)

위 치	수도 비엔티안에서 약350km 떨어진 북부 메콩강과 칸강의 합류점
면 적	16,875km ²
인 구	55만명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 및 육로교통의 요충지이며, 최초 왕국 란쌍의 수도로 州전체가 95년 UNESCO에 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주요산업으로는 농업(80%), 상업(17%), 기타(3%)로 제조업이 거의 없어 생활용품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부터 수입
대전과의 관계	<p>교류경위 : 200.4.10 라오스 부수상(쑤싸밋 령싸밋)겸 외교장관 일행이 대전을 방문하여 시장과 면담시 자매결연을 제안</p> <p>MOU체결 : 2007년 2월 대전⇌루앙프라방 MOU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수파노봉대 MOU체결</p> <p>U C L G : 2022. 10월 루앙프라방 시장 등 3명 회의 참가</p>

③ 방비엥(Vang Vieng)

위 치	비엔티안주의 작은 관광도시로 비엔티안과 약 150km 떨어져 있음
면 적	20km ²
인 구	2.5만명
특 징	<p>석회암 지형의 아름다운 산과 송강 등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풍경이 중국의 계림과 비슷하다고 해서 ‘라오스의 소계림’이라고 불림</p> <p>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배낭여행객들에게 낮은 물가와 조용한 여행지로 인기가 높았으며 한국 방송에도 소개되어 한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버기카, 카누등 액티비티가 많아 인기가 좋은 관광지임</p> <p>고속도로와 고속열차가 개통되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음</p>

① 루앙프라방 시장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3. 10. 23(월) 10:00
- (장 소) 루앙프라방 시청사
- (참 석 자) 13명
 - 대전광역시의회 : 이재경 위원장 등 8명
 - 루앙프라방시 : 비엠통 학사짱 시장 등 5명

간담회 주요 내용

【루앙프라방시】

- 루앙프라방 방문을 환영하며 초청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
- 대전은 루앙프라방시와 자매우호 도시로 상호방문을 통해 양도시의 협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특히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방문은 양 도시 간 문화·관광 분야뿐 아니라 폭넓은 상호교류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루앙프라방시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대전의 발전을 벤치 마킹해 라오스 주민들의 삶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
- 현재 루앙프라방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차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라오스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도 24세 이하의 비중이 높고, 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시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여 경쟁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한국의 여러 농촌 도시들과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단기간 계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 대전 등의 대도시와 기술근로자(전기,통신 등)에 대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 1년 정도의 근로자로 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대전의 대학생 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와 기부물품 기증 등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생 및 대학 간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상호 발전 하길 희망함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먼저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심에 감사.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매우호도시인 루앙프라방주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 확대와 광역의회의 민간외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였음.
- 그동안 대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문화·관광 뿐 아니라 의료·교육 등 실질적인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해 왔음.
- 대전광역시도 이전에는 농업도시 였으나 현재는 과학·교육 도시로 발돋움 했으며 루앙프라방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혁신적 개혁 운동을 벤치마킹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기대함.
- 이번 방문은 또한 대전의 의료관광에 대해 알리고 루앙프라방시의 고위공직자나 사업가들이 대전을 방문해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경험하고, 덧붙여 관광하길 희망함. 관련 홍보 팸플렛 등을 참고하시고 향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재 소통 창구인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나 대전시의회로 연락 바람.
- 계절근로자에 있어 대전은 농촌지역이 아니기에 계절근로자 수요가 없으나 전기 기술자 등 기술 부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보겠음.
- 오후에 국립 수파노봉 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대학생 및 대학간 교류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루앙프라방시에서도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유학생 지원 등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향후 대전광역시의회에 방문해 의료관광과 대학생·계절근로자와의 민간교류 활성화 에 더 많은 협의를 하길 기대함.



【루앙프라방시장 간담회】



【의료관광 홍보책자 전달】



【시장 집무실 기념촬영】

2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3. 10. 23(월) 14:00
- (장 소)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 (참 석 자) 22명
 - 대전광역시의회 : 이재경 위원장 등 8명
 - 외국인지원센터 : 김윤희 센터장 등 2명
 - 수파노봉대학교 : 썬리넷 깨우부아라펫 부총장 등 12명

간담회 주요 내용

○ 국립수파노봉 대학교 소개

- 수파노봉대학교는 2003년 설립되어 2007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음. 라오스 전체 대학 중 5위 안에 드는 규모 있는 대학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6개 학부와 55개 학과가 개설이 되어있음. 석사과정으로 10개학과, 박사과정으로는 7개학과 총 72개의 학·석·박사 과정에 3,000명 학생이 재학 중임. 현재 북부 8개 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교육 및 관광 중점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음.

○ 한국 및 대전시 내 대학과의 교류 현황

- 2018년 한국학 센터, 2019년 한국어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학과는 1-4학년 학생이 89명이며, 1기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이전 한국어학과는 어문계열 한국어 과정이었으나, 올해 9월 정식학과로 승격됨.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라오스 유학생 수는 174명(남성 67명, 여성 107명)으로 이 중 일부학생이 대전에 소재한 배재대, 우송대에서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임. 대전 소재 학교에서 졸업 한 수파노봉교수는 15명(우송대 9명, 배재대 6명)에 이를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또한, 라오스 유학생들이 한국의 관광학과와 경영학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전 내 대학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두 학과를 특성화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학생 등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수파노봉대학교

- 대전과 루앙프라방 양도시 학교간 연구, 세미나 추진 희망.
- 한국을 동경하는 학생들이 많아, 대전을 가서 대전의 다양한 기관 등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 한국어과와 학당이 있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K-pop 행사도 같이 라오스에서 개최하면 매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임.
- 라오스에 봉사활동 오는 학생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지속적 지원 부탁.
- 대학교 학생들이 대전으로 유학가기를 희망하나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워 많이 포기하고 있음. 장학금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기 바람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과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6만 여명으로 점점 증가 추세임.
- K-pop과 K콘텐츠가 전세계 젊은이들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과 같이, 한국학 센터에서 서예, 민화, 한지 공예 체험 등 한국문화 이해 과정 강의를 지원 한다면 양국의 상호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음.
-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던 국제시사랑 경연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바둑교류전 등 각종 대회를 대면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해당 사업은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중으로 의회차원에서 해당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대전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류 추진은 대학과의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센터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올해에도 시와 문화를 매개로 한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은 자체 진행되는 교류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대전으로 초청하여 체류비, 프로그램 추진 등 지원하는 양방향 교류 사업이 있음. 그러나 그 사업은 양 도시간 예산확보를 통해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진은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세부 논의가 필요함

【국제교류 가능성 및 향후 추진 계획】

- 루앙프라방은 관광지로 특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그동안의 국제 교류는 물적 지원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의와의 공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필요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지원중심이 아닌 교류와 지원을 병행하되 추후 양도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학생 유입에 대한 부분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의회, 지역대학 간 소통을 통해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추후 논의할 것임.



【국립수파노봉 대학교와 민간국제교류 정책간담회】



【간담회 후 기념촬영】



【이응노 미술관 홍보 선물 증정】

3 왕궁 국립박물관 간담회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3. 10. 24(화) 09:00
- (장 소) 왕궁 국립박물관
- (참 석 자) 11명
 - 대전광역시의회 : 이재경 위원장 등 8명
 - 왕궁 국립박물관 : 쏜짜이 박물관장 등 3명

간담회 주요 내용

○ 박물관의 역사 및 유물 소개

- 프랑스 식민정부에서 씨사왕왕 왕에 거주지로 건설한 왕궁으로 라오스가 공산화된 이후 왕족이 추방되고 1975년 박물관으로 전환되었음. 건축 양식은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라오스 전통 양식과 프랑스 보자르 스타일이 혼합됨. 박물관 개관 이후 루앙프라방의 역사·문화 연구의 중심지로서 주요 역사자원 중 한 곳임.
- 왕궁 안에는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만들어진 희귀한 불상들과 왕가의 다양한 종교 유품, 금박을 입힌 라마야나 병풍, 라오스인의 전통생활상을 담은 벽화 등이 전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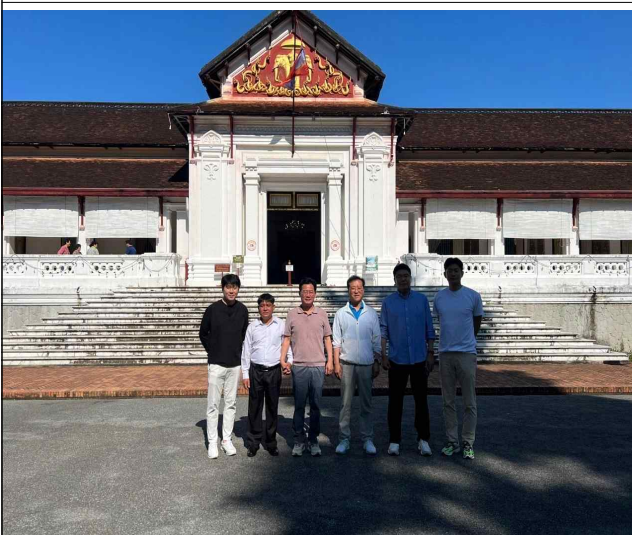
○ 라오스의 현지 문화 소개 및 벤치마킹

- 모계 중심 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높고, 남성들은 경제활동을 잘하지 않음. 지방 의회 의원 492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150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음. 숫자상으로도 여성이 라오스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탁발문화: 외지인들이 불교의 종교의식을 체험하는 것을 관광상품화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단순한 체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눔의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사회의 빠른 성장속에 생긴 빈부격차, 불균형 등 어두운 단면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음.

- 왕궁 국립박물관은 현대화된 대전의 시립미술관, 선사박물관과는 차이가 있는 기존의 왕궁을 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왕궁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그림 등 기존의 전통 문화 보존에 노력한 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대전시의 경우 현재 근현대역사건축물 원형 보존과 복원 등을 통한 관광 상품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왕궁 국립박물관 간담회】



【박물관 앞 기념촬영】



【이응노 미술관 홍보 선물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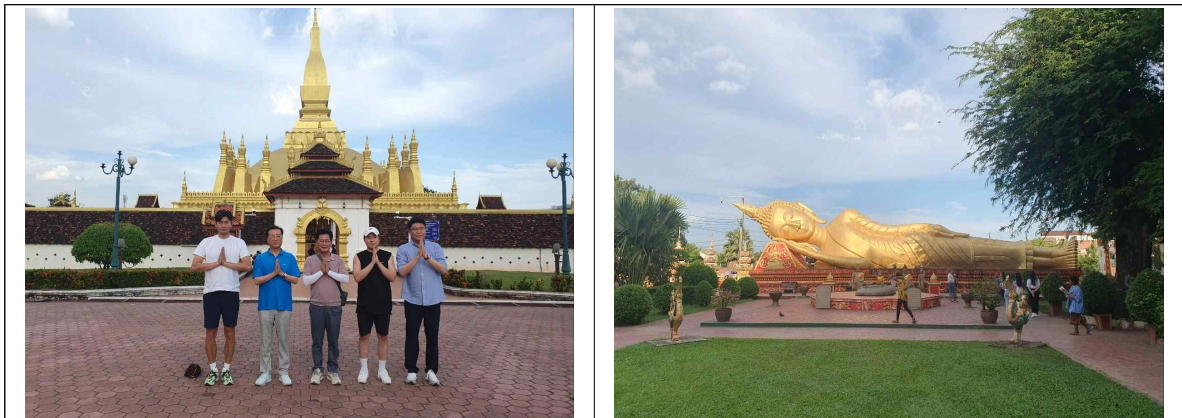
☐ 야시장

- 방비엥,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모두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비엔티안의 경우 낮에는 평범한 골목 이었다가 저녁에 차를 막고 야시장을 운영.
- 한쪽에는 길게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한쪽에는 푸드트럭 운영으로 쇼핑과 먹거리가 어우러져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변화됨.
- 대전의 야시장과 0시 축제 시 보통 판매 매대는 문을 닫고 푸드트럭 등 음식점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 여부 검토할 필요 있음.



☐ 왓 탐 루앙(위대한 불탑)

- 황금사원으로 불리며 라오스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갈비뼈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내부 관람은 불가능하며 도력높은 일부 스님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함.
- 라오스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관광객과 현지인 들이 늘 북적임.



□ 기타 관광지

- 유러피안 거리 : 유럽의 젊은 배낭객들이 저렴한 물가와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방비엥을 방문하고 저녁에 야시장이 열리는 조그만 골목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젊은이들끼리 어울리는 장소가 됨.
- 탁발 체험 : 외국인들이 불교의 종교의식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컨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함.



V

마치며

-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우호도시인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시로부터 상호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초청을 받아, 3박 5일간 라오스를 방문하여 민간교류 확대와 의회의 지방외교 역할을 찾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였다. 이에 루앙프라방시와의 우호협력 외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 수파노봉대학교, 대전시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사전교류를 통해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국제교류 정책 간담회를 국립 수파노봉대학교에서 갖고, 청년교류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다음은 루앙프라방시 방문과 국립 수파노봉대학교와의 정책간담회 등 시정 발전을 위해 느낀 점 등을 밝히고자 한다

-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점은 70년대의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가로등이 별로 없고 도로포장이 안된 지역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생활상이 낙후되어 보였다.

보통 공무국외출장은 선진국을 가서 여러 우수사례 등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낙후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 것처럼, 개발도상국가에 민간교류를 통해 선진 문화·관광·의료 시스템을 알리고 자원봉사·각종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우호적 관계 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는 우호 친선국가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민간 외교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되었다.

- 먼저 루앙프라방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주요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제 발전에 대한 대한 강한 욕구와 간절함을 볼수 있었다.

라오스에는 제조업 공장이 거의 없어,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해 오는 만큼 물가는 비싸고 국민소득은 적어 사실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도입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한 청소차, 응급차 등 공공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외부 원조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내용연한이 지난 소방차 등을 개발도상국에 보내 해외원조를 함으로써 우호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도 청소차, 응급차, 소방차 등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 해외원조를 한다면 대전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대전의 경제인들이

노동력이 저렴한 라오스로 진출해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면 상호 이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국의 “일대일로” 라는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다.

언론을 통해 일대일로 라는 말을 들었을때만 해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라오스를 방문해서 중국이 건설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개발도상국을 자국의 경제권으로 장악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특히 이러한 일대일로 경제지원을 통해 향후 중국인 거주지역을 건설해 30만명을 이주시키기로 라오스 정부와 합의했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베트남, 몽골 등의 개발도상국과 폭넓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다.

라오스 또한 향후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역에 있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같이 막대한 돈을 빌려줘 라오스의 경제를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출장을 통해 한국에 대한 라오스의 호감을 느낄수 있었고

K-pop과 새마을 운동, 민간교류, 민간원조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린다면 라오스는 이전의 베트남과 같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신흥시장이 되는 동시에 우호국가가 될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들었다.

○ 다음으로 국립수파노봉대학교를 방문, 간담회를 통해

한국에서 교육받고 대학교수가 된 수파노봉대학교수가 총 40여명 이며 대전에서 유학하고 수파노봉대학교에서 재직중인 교수가 15명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나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양 도시 대학간 교류를 통해 라오스의 학생이 대전에 유학가거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교육 체험에 대한 대전시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석·박사 수료후 대학교수가 된 분들은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았으며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자연히 대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동경이 높아질 것이기에,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의 무엇보다 시급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대학·시의회·대전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활동, 교육교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자라나는 라오스 청년들에 한국의 선진교육을 알리고 향후 민간교류는 더욱더 발전될 거라 생각한다

○ 그 외에 왕궁 국립박물관, 야시장, 유러피안 거리 등은

과거의 유적들을 보존하고 관광상품화 하고, 현지의 수·공예품 판매를 위한 야시장 개설,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러피안 거리 등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였다.

현지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시장 등의 관광지는 넓은 공간보다는 좁은 거리 등에 조성하여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며,

대전시도 0시 축제 등의 행사 추진시 일부 거리에 야시장이나 특정상품 특화 거리를 지정하고 조성해,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찾아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 우리위원회는 라오스를 출장하며 저녁에는 함께 모여 대전시와 라오스의

문화·관광 발전과 민간교류에 대해 많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로써 라오스의 여러 도시와 관광지, 대학교와의 간담회를 하며 느낀 점은 이제는 우리도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 차관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문화를 잠식하려 하고 중국의 경제권 안에 가두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후 많은 역경을 이겨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손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나라와 우호관계와 경제 교류 확대를 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호감이 있고 새마을 운동을 동경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길 희망하는 나라에게 자원봉사, 청년교류,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고 동경의 나라가 된다면, 향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라오스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각각의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교류와 지방외교에 대한 대전시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향후 선진의료, 대학간 교류 프로그램, 내용연한 지난 차량, 컴퓨터 등 기자재의 원조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전시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선진도시 대전의 위상을 많은 개발도상국 도시에 알리는 지역외교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해 본다.